



# 손으로 보는 세상



### 시선집중

[성명서]시각장애인을 역차별하는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결과, 시각장애인은 절대 수용 할 수 없다!

### 테마기획

4월 20일은 국가에서 지정한 '장애인의 날'입니다.

### 인 터 뷰

시각장애인 유튜브가 운영하는 채널 '브레드박' 운영자 박준현 씨를 소개합니다

### 포커스

시각장애인 뮤지션과 함께한 창작 뮤지컬 '기타리스트'

목차	02	
점자로 말해요	03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톨립</li></ul>
시선집중	04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성명서] 시각장애인을 역차별하는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결과, 시각장애인은 절대 수용 할 수 없다!</li></ul>
테마기획	06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4월 20일은 국가에서 지정한 '장애인의 날'입니다.</li></ul>
인터뷰	08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시각장애인 유튜버가 운영하는 채널 '브레드박' 운영자 박준현 씨를 소개합니다</li></ul>
포커스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시각장애인 뮤지션과 함께한 창작 뮤지컬 '기타리스트'</li></ul>
함께 사는 이야기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너희가 이름을 믿느냐 신나라(도서 낭독 자원봉사자)</li></ul>
월드 리포트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영국, 시각장애인 위한 점자책 리더기 출시 예정!</li><li>● 가나의 한 교육대학원, 시각장애인 학생 유일한 졸업 후보자에 올라</li></ul>
뉴스앨범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2019년 상반기 점역 · 교정사 양성교육 실시!</li><li>● 한시련, 시각장애인 정보접근성 차별행위 근절을 위한 기자회견 펼쳐</li><li>● 편의시설 전문가 교육으로 시각장애인의 이동편의를 모니터링합니다!</li><li>● 전국 시각장애인 재활지원센터 담당자, 1박 2일 동안 진행돼</li></ul>
시각장애인을 만나면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백화점이나 대형할인점 등에서 쇼핑을 할 때</li></ul>

4월에는 전국 곳곳이 튜립으로 물들고,  
축제를 하기도 하네요.

## 튜립은 점자로 어떻게 나타낼까요?



① ④  
② ⑤  
③ ⑥

점자일람표															
자 음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된소리
받 침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쓰받침
모 음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ㅙ	ㅚ	ㅜ	ㅠ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ㅑ	ㅓ	ㅕ	ㅗ
약 자	가	나	다	마	바	사	자	카	타	파	하	억	언	얼	연
	열	영	옥	온	웅	운	울	은	을	인	것				
약 어	그래서		그러나		그러면		그러므로		그런데		그리고		그리하여		
숫 자	수표	1	2	3	4	5	6	7	8	9	0				
문 장 부 호	!	?	.	,	-	~(—)	*	“ ”	‘ ’	/					
	:	가운뎃점 (.)	말줄임표(...)		말줄임표(...)		소괄호( )		대괄호[ ]						
영 어	영어시작	끝	대문자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아포스트로피 ,

\* '나, 다, 마, 바, 자, 카, 타, 파, 하' 약자뒤에 모음이 이어질 때는 약자를 사용하지 않는다. \* ㅅ, ㅈ, ㅊ, ㅆ, ㅊ, 다음에 약자 영 ㄹ 이 올때는 '영'으로 바뀐다.

## [성명서]

# 시각장애인을 역차별하는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결과, 시각장애인은 절대 수용 할 수 없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은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1998년 시행되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편의시설이 적정하게 설치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편의시설 설치확대를 위하여 5년마다 편의시설 설치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전수조사 시행년도인 지난해의 결과보고에 의하면, 편의시설 설치율은 장애인등편의법이 시행된 1998년 47.4%에서 1.7배 높아진 80.2%로 상승하였고, 적정설치율은 조사를 시작할 당시인 2008년 55.8%에서 74.8%로 높아졌다고 보도되었다. 장애인등편의법이 시행된 이후 건축물 설계단계부터 편의시설 설치 여부를 사전 확인하는 ‘적합성 확인제도’의 도입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의무화 등 지속적인 제도 보완과 인식 개선 등에 따른 결과라고 복지부는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승강기, 복도,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등 일부 편의시설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 도출된 결과일 뿐 점자블록, 점자안내판과 같은 시각장애인 안내 및 유도설비의 설치율은 57.5%, 적정 설치율은 54.3%라는 터무니 없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당국의 정책에 오류가 있거나 장애계 내에서도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느낌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상황은 더 이상 수수방관하고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임을 직시하여 시각장애인의 쾌적한 보행 환경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의 실태

를 면밀히 파악하고 그 원인분석과 개선안을 도출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 정립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이에 우리나라 50만 시각장애인과 그 가족을 대표하여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금번의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결과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히며, 시각장애인의 사회적 진입장벽 및 장애요소 배제를 위해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전국 17개 지부 및 198개 지회 모두가 합심하여 시각장애인의 권익 옹호와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 투쟁할 것임을 밝히며,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및 편의시설 관련 모든 사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보건복지부는 잘못 설치된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이 신속히 개선되도록 후속 조치 관련 계획을 장애인 당사자단체 입회하에 수립하고 조속한 시일 안에 실행 하라!

**둘째,** 각 지방자치단체는 보건복지부의 후속조치 계획을 적극 수용하여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권을 보장하라!

**셋째,** 보건복지부는 시각장애인을 배제한 현행 장애인 편의시설 정책과 관련 법률을 즉각 정비하라!

2019년 3월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 4월 20일은 국가에서 지정한 ‘장애인의 날’입니다.

4월 20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4월 20일은 국민들에게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기념일인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인의 날’은 1981년 UN총회에서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주제로 ‘세계 장애인의 해’를 선포한 것에서 시작되었는데요. 이 날은 세계 모든 국가에서 기념사업을 추진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72년부터 민간단체에서 개최해오던 ‘재활의 날’을 이어 1981년부터 나라에서 ‘장애인의 날’로 명명하고 기념행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사실 1981년 당시에는 정부의 법정기념일 축소 방침으로 인해 장애인의 날이 법정 기념일로 지정받지 못했었는데요. 이후 1989년 12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1991년 4월 20일이 법정기념일인 ‘장애인의 날’로 공식 지정 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43조 규정에 “국가는 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날과 장애인 주관을 설정한다.”고 명시함으로써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이 법정 기념일이 된 것이지요.

그렇다면 왜 ‘장애인의 날’은 4월 20일로 정해졌을까요?

4월은 1년 중 모든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로 장애인의 재활의지를 부각시킬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의미로 ‘장애인의 날’은 4월로 지정되었고, 또한 4월에 있는 다른 기념일들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20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장애인의 날’인 4월 20일이 토요일이거나 일요일인 경우, 기념행사는 4월 18일에 진행되는데요 4월 19일에 진행되지 않고 18일에 진행되는 이유는 4·19 혁명 기념일 행사와 겹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장애인의 날 공식 행사에서는 장애인 인권 헌장을 낭독하고 장애인 복지 유공자에 대한 훈장, 포장, 표창이 수여됩니다. 특히 1997년부터 ‘올해의 장애극복상’을 제정해 장애를 극복한 장애인을 발굴하고 시상함으로써 장애인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4월 20일부터 1주일을 장애인 주간으로 설정하여 장애인 당사자 단체,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념 행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의 주최기관은 정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장애인의 날 행사 추진협의회’입니다. ‘장애인의날행사추진협의회’는 장애인당사자단체 모두가 장애인의 날 행사를 치르자는 취지로 결성된 협의회로 23개의 장애인당사자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도 장애인의 날 행사를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의 지부, 지회에서도 장애인의 날을 맞아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 시각장애인 유튜버가 운영하는 채널 ‘브레드박’ 운영자 박준현 씨를 소개합니다

다양한 콘텐츠가 가득한 유튜브,  
시각장애인 유튜버가 운영하고,  
에어소프트건을 소개하는  
인기 채널 ‘브레드박’의 운영자  
박준현 씨를 만나보았습니다.



**Q.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저는 시각장애인 유튜버로 ‘브레드박’ 채널을 운영하는 박준현이라고 합니다.

**Q.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A. 솔직히 말씀드리면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심심함’입니다. 유튜브를 시작할 당시 취업준비도 뭐다 하면서 친구들과 만날 시간이 줄어들었고, 무료하다는 감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의 일상을 찍고 유튜브에 업로드, 사람들과 공유하며 즐거움을 찾게 되었습니다.

**Q. 현재 일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많이 바쁘실 것 같은데 언제 주로 영상을 찍고 업로드 하시나요?**

A. 저는 현재 헬스키퍼로 근무를 하고 있고, 주로 주말에 영상을 촬영하고 평일 퇴근 후에 영상 편집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영상은 찍는 것보다도 편집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주말에 찍은 영상을 평일에 편집하려면 며칠 걸리게 되고, 편집이 완료되면 업로드 할 수 있는 것이죠.

**Q. 전맹이라고 하셨는데, 영상 편집은 어떻게 진행하시는지요. 누군가 도와주시는 분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A. 이 부분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부분일텐데요, 모든 영상 촬영과 편집은 저 혼자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상 촬영 시 카메라를 고정해 두고 촬영을 하면서 편집을 해야 할 부분에서 입으로 소리를 내거나 박수를 치면서 편집점을 표시해둡니다. 방송 촬영할 때 스태프들이 슬레이트를 치는 것하고 비슷한 표시를 하는거죠. 이렇게 만들어진 영상은 파워디렉터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영상을 들으면서 편집합니다. 다양한 영상 편집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파워디렉터를 이용하는 이유는 한글 지원이 가장 잘되고, 센스리더의 접근성이 좋기 때문입니다.

**Q. 그렇군요, 영상 촬영을 오래 하셨으니 사진을 찍는 법도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시각장애인분들께 사진을 잘 찍는 법을 소개해주시 수 있을까요?**

A. 영상을 잘 찍기 위해서는 구도가 가장 중요한데요,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을 켜고, 상단 중앙이

라고 알림이 나오면 미간 가운데에 카메라를 맞춥니다. 그 뒤 물체에 포커스를 맞추고 사진을 찍으면 정 중앙에 피사체가 나오게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Q. 브레드박 채널을 보면 장난감 총인 에어소프트건의 리뷰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에어소프트건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이 콘텐츠를 다룰 생각을 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A. 에어소프트건은 쉽게 말하면 비비탄 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겉모양은 실제 총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비비탄 총알만 들어가고, 유희용 완구로 분류되어 있는 것입니다.

안전 규제 등으로 인해 미성년자는 구입할 수 없는 것들이 많지만 수집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장난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총을 너무 좋아했고, 총이 나오는 영화를 볼 때면 유독 더 몰입하곤 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께서 위험하다고 반대하셔서 장난감 총을 구입하고 가지고 놀 수 없었지만 성인이 되니 이런 제약들이 사라졌습니다. 그 뒤로 월급을 받으면 제가 좋아하는 장난감 총들을 구입해 모으기 시작했고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친구가 에어소프트건을 이용한 콘텐츠 제작을 권유해 유튜브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Q. 최근 유튜버로 활동하며 돈을 버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유튜브가 큰 수익이 나는 활동인가요?**

A. 많은 사람들이 막연하게 유튜버라고 하면 많은 돈을 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유튜브의 수익구조는 조회수와 비례하고, 구글 애드센스와 연동을 시켜 네티즌들이 영상을 보기 위해 광고를 보면 수익이 창출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수익을 위해 유튜브를 시작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유튜브를 이용해 부귀영화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유튜브는 자신을 알리고 타인과 자신의 콘텐츠를 공유하며 즐거움을 얻는 수단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Q.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유튜브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으시다면 어떤 것일까요?**

A. 저는 유튜브를 이용해 큰 돈을 벌고 싶고 이런 마음은 없습니다. 다만 시간과 건강이 허락될 때까지 유튜브를 계속하면서 다른 장애인들도 유튜버로서 도전을 하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장애인 유튜버라고 해서 장애와 관련된 콘텐츠만 다룰 필요 없고 나만의 취미, 생활 등을 공유하면서 자연스럽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진다면 시각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개선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시각장애인 뮤지션과 함께한 창작 뮤지컬 ‘기타리스트’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눈으로 바라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각장애인은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데요.  
그들이 바라본 세상은 어떨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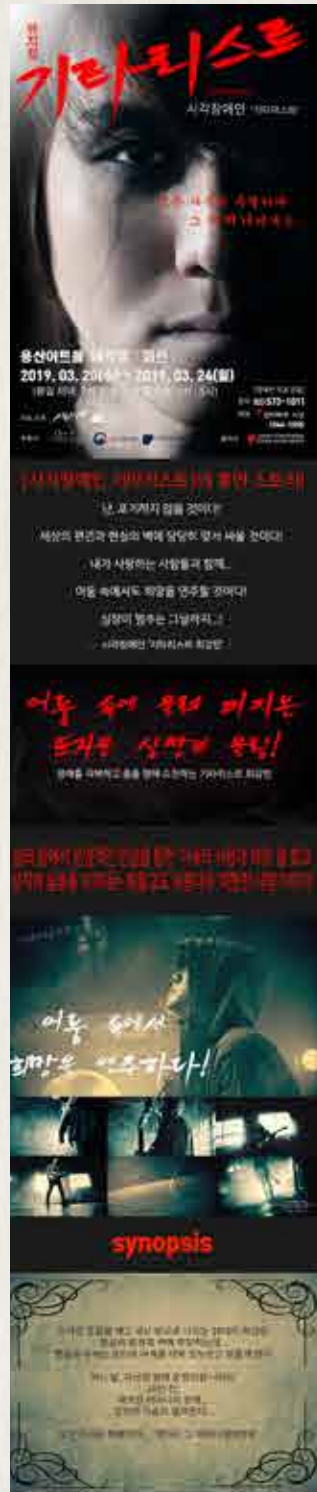
지난 3월 20일부터 3월 24일까지 5일 동안 서울 용산아트홀 대극장 ‘미르’에서는 시각장애인 뮤지션을 주인공으로 한 창작뮤지컬 ‘기타리스트’의 막이 올랐습니다.

지난 2018년 10월,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사막여우픽처스가 업무협약을 맺고 진행했던 창작뮤지컬 ‘기타리스트’의 막이 올랐습니다.

‘기타리스트’는 꿈과 희망, 가족의 사랑을 감동적으로 다룬 내용의 가족 뮤지컬로 지친 삶의 현실을 뚫고 꿈을 이루기 위한 ‘도전’과 ‘뜨거운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주인공 ‘최강민’ 역에는 서울예술대학교를 수석으로 입학하고 SBS 스타킹과 슈퍼스타K3에 출연했던 실제 시각장애인 기타리스트인 정명수님이 캐스팅 되어 극 중 진한 감동을 더했습니다.

본 공연은 장애인의 문화향유권 확대를 위해 장애인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시각장애인에게는 공연 시 송·수신기가 배부되었습니다. 또한 공연 수익의 10%는 좋은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기부하기도 하였는데요. 본 공연의 코믹과 콘서트의 재미를 선사하게 될 ‘오디션 장면에서는 2018평창 올림픽의 폐막을 장식했던 MB크루의 다이내믹한 댄스를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뮤지컬 ‘기타리스트’의 작품 의도에 공감하고, 사랑 나눔 프로젝트에 동참한 많은 유명 인사들의 응원릴레이도 엔딩크레딧에 포함되었는데요. 가수 김경호, 배우 정준호, 방



송인 흥석천, 가수 박남정, 가수 태진아 등은 공연이 성황리에 마칠 수 있도록 힘찬 응원을 보내주었습니다.

뮤지컬 ‘기타리스트’는 영화적, 연극적, 콘서트적인 요소가 절묘하게 결합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무대 세트 대신 빛을 활용한 조명에 술과 스크린 영상으로 무대를 디자인하여 색다른 공연의 감동을 선사하였는데요.

공연의 총 연출을 맡은 오혜성감독과 (주)AK엔터테인먼트의 안선민 대표는 뮤지컬 ‘기타리스트’가 서울 초연에 이어 전국 릴레이 공연을 이어가며 그 무대를 넓혀 뮤지컬과 휴머니즘의 감동 콜라보를 이어가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서울에 이은 뮤지컬 ‘기타리스트’의 지방 순회공연이 진행될 텐데요. 많은 분들의 관심이 있길 바랍니다.





## 너희가 이름을 믿느냐

신나라(도서 낭독 자원봉사자)

동생 남자친구 이름은 '정구'다. 이름가지고 놀리는 것, 별명을 지어주는 것을 좋아하는 난 그의 영어 이름이 '저스틴'이라는 것까지 알아내어 '저스틴 정구'라고 부르곤 한다. 늘 이름으로 장난칠 궁리를 하기 때문에 내 동생들은 주변사람들, 특히 남자친구의 이름을 알려주는 것을 극도로 꺼린다. 그 밖에도 가족들은 그를 '길구봉구', '영구맹구'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이름이란 뭘까? 나 역시 학창시절부터 서른이 가까운 지금까지 '신나라'라는 이름 때문에 놀림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의 이름에 관심이 많다.

대학시절, 하루는 과 선배 언니가 본인이 세운 가설을 얘기했다. 언젠가 논문으로도 쓸 것이라며 진지하게 꺼낸 이야기는 사람의 이름이 성격과 일생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이야기는 대략 이렇다. 강 씨와 한 씨의 성을 가진 두 사람은 다른 삶을 살게 되어있다. 이를테면 강 씨는 수업에 제일 먼저 도착해야 되고, 한 씨는 조금 느긋하게 와도 된다. 출석부는 늘 앞에서부터 부르기 때문이다. 김 씨 성을 가졌던 언니는 한번쯤 출석부를 뒤에서부터 불러야한다고 주장했다. 나는 딱 중간이라서 어디서부터 불러도 상관없지만. 어쨌든 언니는 이런 사소한 것들이 모여 결국 삶에 영향을 준다고 했다.

출석을 부르는 순서와 별개로 나는 늘 이름 때문에 고충을 겪었다. 새 학년 첫날에 선생님들이 출석부를 보고 '뭣' 웃는 것은 기본이고, 임시회장이나 발표는 늘 나를 시켰다. 다른 친구들은 출석번호랑 같은 날짜만 피하면 됐는데 나는 아무것도 피할 수 없었다. '7번, 17번, 27번... 그리고 신나라 일어나'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름 덕분에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고, 리더십 있는 아이라고 평가받았다. 문제는, 내성적인 내게 모든 것이 부담이었다는 것이다. 조금 엉뚱하고 낙천적인 성격과도, 군인이라는 현재 직업과도 잘 어울리는 이름을 고맙게 생각하지 얼마 되지 않았다.

놀림을 받을 때면 내 이름의 좋은 점을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하며 견뎠다. 첫 번째, 한번 만나도 기억하기 쉽다. 두 번째, 한글 이름이라 한자로 안 써도 된다. 세 번째, 동그라미가 없어 바느질하기 쉽다. 그러나 가끔 선생님들은 부모님의 이름이라도 한자로 쓰게 했고, 이제는 손바느질을 하는 시대도 아니다. 눈에 띄는 이름이 주는 장점도 있지만 스트레스도 나름 크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을 굳이 견디며 사는 것보다 스스로에게 새 이름을 짓고 그 이름으로 불리고 싶어졌다.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으로 30년쯤 살았으니 충분하지 않나 싶다. 최근에 마음에 드는 이름을 찾았다. 비록 개명 후에는 '아니, 그럴 거면 뭣 하러 바꿨대?'라는 말을 많이 들을 것 같지만.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했던 선배는 아내의 이름과 자신의 이름에서 한 글자씩 따와 아이의 이름을 지었다. 낭만적이라고 생각했다. 특이한 이름을 보면 걱정과 동질감을 반씩 느낀다. 이름이 삶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가 없고, 특히나 이름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살아왔기 때문에 때로는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의 이름을 고민해본다.

## 영국, 시각장애인 위한 점자책 리더기 출시 예정!



영국의 Bristol Braille Technology는 올해 Canute 360과 함께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책 리더기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리더기는 세계 최초의 멀티라인 점자리더기로 한 번에 9줄의 텍스트를 표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리더기에는 점자 형식으로 번역 된 모든 텍스트 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있는데요. 이 기술로 많은 시각

장애인들에게 무한한 독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점자 리더기의 최종 프로토타입은 올해 노트북과 비슷한 가격으로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가나의 한 교육대학원, 시각장애인 학생 유일한 졸업 후보자에 올라



가나의 Nusrat Jahan Ahmadiyya(NJA) 교육 대학에서 기초 교육 졸업생 후보자에 25세 시각장애인 James Yelsong이 유일한 후보자로 올랐습니다.

Yelsong은 인터뷰에서 자신이 졸업할 수 있도록 공부한 동기에 대해 “형편이 어려워 부모님께서 힘들게 농사를 지으시는 것이 큰 동기부여가 됐다”고 말했는데요. 시각장애인 쌍둥이 형제로 태어난 Yelsong은

강인한 마음과 끈기, 선생님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졸업 후보자가 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대학은 시각장애인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점자 기계 다섯 대, 데스크탑 컴퓨터 6대로 구성된 학습센터를 개장했는데요.

NJA 교육 대학 교장 Hajja Asma-U Ismail은 학교의 세 가지 주요 프로젝트가 중단됨에 따라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원활한 학업 연구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으로 NJA에서 Yelsong과 같은 훌륭한 학생이 배출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학습 환경이 지원되길 바랍니다.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NEWS

## 2019년 상반기 점역·교정사 양성교육 실시!

지난 3월 23일 토요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는 2019년 상반기 점역·교정사 양성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상반기(제35회) 점역·교정사 시험 응시 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이번 교육에는 국어(점역사반) 35명, 국어(교정사반) 3명, 영어 15명, 수학/과학(컴퓨터) 7명, 음악 4명, 일본어 3명 총 67명이 참석했습니다.

양성교육 참가자들은 10시부터 17시까지 7시간에 걸쳐 2019년 상반기 점역·교정사 시험에 대비한 교육을 들었으며 시험에 대비해 각 과목과 관련한 지식을 쌓았습니다.

아무썸록 4월에 있을 시험에서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 한시련, 시각장애인 정보접근성 차별행위 근절을 위한 기자회견 펼쳐

지난 4월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시각장애인 정보접근성 차별행위 근절을 위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 기자회견은 현재 계속 진행되고 있는 시각장애인들과 유통 3사 간의 소송과 관련한 것으로 총 소송가액 57억 7800만원이 걸린 민사소송인데요, 이마트몰, 롯데마트몰, G마켓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소송은 유통 3사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는 등 웹 접근성을 보장하지 않아 진행된 것으로 4월 4일에는 6차 변론기일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변론에서는 증인 신문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었으며, 다음 변론 기일(6월 27일)에 증인 1명을 채택해 신문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편의시설 전문가 교육으로 시각장애인의 이동편의를 모니터링합니다!

지난 4월 2일부터 4월 5일까지 3박 4일의 일정으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는 제4회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전문가 교육이 열렸습니다. 이번 교육은 연합회 산하 17개 시도지부 및 산하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지역별 편의시설 전문가를 양성하고, 교육을 통해 올바른 편의시설 설치 지침 공유와 전문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각 지역 내 주체적인 모니터링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진행된 것인데요.



이론교육은 시각장애인 보행관련 전문가의 외부강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의 종류별 기능 소개와 점검 방법 강의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실제 현장에서 교육 내용을 확인해볼 수 있도록 공공건물 6개소에 내방하여 직접 조사해보는 현장교육 및 실습, 테스트도 진행되었습니다. 교육 참가자들은 이를 동안 받은 교육 내용을 바탕으로 본인의 지역으로 돌아가 꼭 응용해볼 것이라는 교육 참가 소감을 밝혔습니다.

### 전국 시각장애인 재활지원센터 담당자, 1박 2일 동안 진행돼

지난 4월 1일부터 4월 2일까지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는 전국 시각장애인 재활지원센터 담당자 연수가 열렸습니다.



전국의 재활운영사업 담당자 54명이 참가한 이번 연수의 강의 내용은 WYP교육컨설팅 박원영 대표의 '감성소통-감성을 사로잡는 기술', 한국장애인개발원 서원선 박사의 '해외 중도시각장애인 재활서비스 종류와 특징',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중도시각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정상현 담당자의 '중도시각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지침 교육'으로 구성되었는데요,

참가자들은 교육을 들으며 자신의 역량을 키웠으며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이 근무하는 재활지원센터에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중도시각장애인을 발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 백화점이나 대형할인점 등에서 쇼핑을 할 때

시각장애인들에게도 쇼핑은 단순히 생필품 구입에서 그치는 것뿐만 아니라 기분전환과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일상 활동 중의 하나입니다. 특히 요즘은 가격파괴와 심야영업시간 등으로 쇼핑의 다양성을 꾀하는 대형할인점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대형할인점은 물건이 다양하고 가격이 싼 반면에 구매를 도와주는 점원이 별도로 없어 시각장애인의 경우는 혼자서 쇼핑하기가 힘듭니다. 만약 혼자 쇼핑을 하는 시각장애인을 만나면 시각장애인이 구입하려는 품목에 대해 간략한 정보를 제공해줍니다. 동일 품목에 여러가지를 비교할 수 있을 때도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여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합니다.



### I 후원안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전국 50만 시각장애인의 복리향상과 권리증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시각장애인 단체입니다. 후원자의 정성된 사랑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소중한 쓰일 것이며 후원자의 후원금은 소득세법 제34조, 법인세법 제18조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지로번호** 7608162

**계좌번호** (예금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신한은행 140-001-911645 국민은행 835-02-0114-768, 497801-96-200273

우리은행 428-04-103943 하나은행 757-810001-08405, 247-890007-44704



손으로보는세상 2019년 4월 225호

발행일 2019년 4월 15일 발행처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발행인 홍순봉 편집 김민지

주소 07236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22(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601호

T 02,799,1043 F 02,799,1017

홈페이지 [www.kbuwel.or.kr](http://www.kbuwel.or.kr) 한글도메인 [시각장애인.kr](http://시각장애인.kr)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kr

디자인 한국엠디 02,867,1921 캘리 모노D